

작품 내용

제 목	접힌 시간
내 용	세상은 유리판이 되었고 터치 한 번이면 별과 노래와 문장까지도 쉽게 건너온다 그러나 그 뒷면에는 지워지지 않는 접힌 자국이 있다 누군가의 새벽, 손끝에 땀 잉크, 구겨졌다 펴진 종이의 숨, 끝내 남겨진 한 줄의 밤 문장은 옮겨지지만 그 시간은 옮겨지지 않는다 이름 앞에 놓인 작은 나무 의자 하나 비어 있어도 주인을 기다리는 자리 오늘도 나는 박수보다 먼저 그 이름과 접힌 시간을 읽는다